

# S

VENTURE SPECIAL 벤처 EXPANSION

뭉치면 살고 흩어져도 산다!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벤처 Again'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벤처인의 행보는 이제 '벤처 Expansion'을 향하고 있다. 5대 확산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플랜 구상을 끝마친 벤처의 새로운 미션이 한국경제에 몰고 올 파급효과가 자못 기대된다.

## 벤처 확산

벤처업계의 올해 화두는 '확산'이다. 지난

10년간 생생과 시련, 재도약의 시기를 거치며 단련된 벤처는 2006년을 기점으로 삼아 본격적인 '확산의 시대' 개막을 알렸다.

기능성과 희망으로 전철되었던 벤처 초창기, 사회의 전폭적 지원과 관심 속에 벤처는 만개했고 젊은이의 고동치는 심장처럼 역동적으로 우리경제의 한 축을 형성했다. 그러나 급성장 을 견제하는 듯 벤처의 질주에 제동이 걸렸고 벤처는 학습과 시련의 시기를 겪으며 성숙을 위한 준비 를 갖춰나가야만 했다.

그 이후 2005년까지 기반구축기를 거치며 벤처는 다시 태어났다. '벤처 Again'의 구호가 수많은 벤처인의 가슴을 방망이질 치며 진정 벤처인의 피가 흐르는 백만대군으로 다시 부상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뛴 결과 벤처의 저력을 재입증하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당당히 이름 을 올렸다.

이제 벤처는 확산의 움직임을 꽈하고 있다. 이는 세계를 향해, 전국 방방곡곡을 향해 벤처의 깃발을 높이 세 우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산업 간 컨버전스를 활성화해 유비쿼터스 시대의 중심에 서고, 창업을 독려 함으로써 더욱 굳건한 벤처의 위상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자금은 벤처를 빼놓고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만큼 벤처의 확산 에 거는 기대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더 멀리, 더 힘차게 퍼져나가는 벤처의 영향력 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머지않아 21세기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주역으로서 벤처의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 01. 세계화

대기업-벤처기업 간의 상생 → 공진화 구조 구축  
리딩벤처와 초기·성장벤처기업 간 동반진출 확대  
한민족글로벌네트워크(INKE) 역할 강화

# 02. 지방화

리딩벤처기업과 지방벤처기업 간 멘토링 사업 확산  
지방기업의 코스닥 등록 우대  
우수 벤처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법인세(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知產복합체

# 03. 산업별성장

모바일 기반의 유비쿼터스 시대의 중심주도 국가  
반도체산업 관련 벤처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비메모리 주도권 확보  
조선·자동차산업의 고급화와 IT기술의 연계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허브 역할  
문화콘텐츠와 첨단 벤처기술의 융합

# 04. 풀뿌리 창업 확산

엔젤의 저변확대 유도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제도 개선  
엔젤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 조성  
특허 및 논문기반의 사업화 지원 확대  
시작품 테스트베드 시스템 구축

# 05. 확대재생산

성공 벤처의 전문벤처캐피탈화를 통한 선순환 확대  
성공 벤처의 클러스터 형성 유도  
벤처 경영전문CEO 마켓 형성